

生活叢書

(4)

書簡文全書



學園社

그러나少女가 끝까지 나를 멀리하는 그러한 괴로움을 나에게 준다면 나에게 이 괴로움을 이겨낼 道理와 自信은 없오. 나는 이제 마지막 길을 떠나야 하겠읍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알 것이며, 또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그 캄캄한 地獄에 가서도 나는 훗날을 커들고 그대少女가 돌아오는, 진정 그대少女를 기다리고 있겠읍니다. (詩人·韓無學)

難語解釋

○異質(이질) | 질이 다름. ○歷程(역정) | 시간적인 과정. ○曝陽(복양) | 몹시 내리쬐이는 별. ○屢氣樓(신기루) | 地表面에 가까운 곳의 기온과 조금 높은 곳의 기온이 서로 틀리는 까닭에 대기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먼 곳의 물건 현상이 바다에서는 공중으로 사막에서는 지평선 근처로 곧게 혹은 거꾸로서 보인다.

5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明民氏.

어제 黃昏(황혼)이 깃들 무렵에 明民氏의 편지를 받아 읽었어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어오.

明民氏가 새삼스럽게 제게 편지를 써왔구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封筒(봉통)를 뜯을 念을 하지 않고 한참이나 편지를 이리 저리 뒤졌어오. 그러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말로써 할 수 없는 중대한 어떤 사연이 필연코 적혀 있으리라.)

저의 斷案(단안)은 꼭 맞고 말았어오. 明民氏, 눈물겹도록 반갑고 感謝해오.

저같은 사람에게 求婚을 하신다니... 明民氏와 저는 너무나 彼此를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희들은 少年少女時節을 한 이웃에서 成長하지 않았어오?

童心の 世界에서 明民氏와 저는 소꿉장난으로 같이 成長한 竹馬之友(죽마지우)였읍니다. 점차로 철이 들면서부터 저희들은 男女有別을 깨닫지 않았어오. 그때부터 저희들은 저희들 自身이 부끄럽고 남의 눈이 두려워 疎遠(소원)해지지 않았어오.

허전한 不安을 안고서도 저희들은 자주 만나지 못할조. 六·二五라는 크다면 不幸은, 不幸 속에서도 저희들을 길러주지 않았어오.

서울이 完全收復이 된 몇 달 後 정말로 奇蹟的(기적적)으로 明民氏와 邂逅(해후)하지 않았어오. 그때부터 저희들은 童心에서의 友情보다 異性間의 友情이 나날이 두터워지지 않았읍니까. 생각하면 꿈같은 過去였어오.

자주 만날수록 明民氏와 저는 괴로움을 맞보게 됐어오. 저나 明民氏나 어떤 告白을 하고 받아야 될 岐路線上(기로선상)에서 허덕이지 않았어오. 지금 생각해보니 明民氏와 저 사이에 告白이 必要치 않았어오.

봄의 季節이 木植物을 蘇生(소생)케 하는 自然의 法則과도 같이 저희들 사이는 이미 봄의 過程을 지나 結實의 季節인 가을이었어오. 그 가을의 結實을 彼此 말 못하고 주저하지 않았어오.

明民氏가 오를 제대 보내주신 편지 句節 句節은 제가 明民氏에게 하꽃은 告白의 全部였어오. (저의 애정 고백에 찬동하신다는 표시로 오는 토요일 오후 두시에 덕수궁 정문에서 만남시다.) 고...
꼭 나가겠어오. 이제 그날 만나서 서로 여러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좋아오. 이미 제 마음도 明民氏처럼 確固不動(확고부동)해오.

明民氏와 저라면 이 險한 世波를 勇敢하게 헤엄쳐 나갈 수 있으리라. 마음이 샘 솟는 닳은 제가 明民氏를 너무 過信하는 탓일가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꼭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世上 許多한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나 자기처럼 남을 믿을 수 있겠어오.

믿는다는 것과 믿음을 相對便에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자꾸 돼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저는 남을 믿을 수 있고 저를 남이 믿어 준다는 篤찬 感激을 어떻게 表現해야 할가오? 그날이 지금부터 기다려져오. 무슨 빛갈의 옷을 입고 가야 하는가를 지금부터 自問自答하고 있어오.

明民氏는 웃으실거예요. (우리 사이에 무슨 모양 운운의 말을 하느냐고요?)

그러나 너무나 幸福하면 사람이란 本來의 自己理性을 잊을 수가 번번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오.

저희들은 世間의 稱讚(칭찬)과 非難(비난)에 左右되지 않는 明民氏와 저가 돼야 해오.

約束하시겠소.

어서 그날이 無事히 다가오기를 祈願하면서
明民氏 안녕히 주무세요. (小說家·金長壽)

雜語解釋

○封筒(봉투) — 封套(봉투)와 같은 뜻. ○竹馬之友(죽마지우) —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라난 친구. ○疎遠(소원) — 서로의 정분이 가깝지 못할. ○邂逅(해후) — 우연히 서로 만남. ○蘇生(소생) — 다시 살아남.

6 同意할 수 있애그단

朴生생님.

사실을 말씀드리오면, 어떻게 할가하고 며칠 동안을 괴로움 가운데 망서리다가 결국은 편지로써 회답을 올립니다. 선생님의 뜻 밖의 글월을 받고 저는 참으로 당황했습니다.

거기에는 선생님의 큰 착오가 계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가 하고 저는 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만나서 직접 말씀으로 지금 저의 심경을 알려드릴가 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께서 만나자고 하신 시간에 만나자고 하신 장소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근처까지 갔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을 만나 뵈고 저의 심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하여도 부자연스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렇게 편지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朴生생님.

선생님의 고마우신 뜻을 받아드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알고 보면 선생님께서 알맞지 않는 여자입니다. 저는 평범하고, 초라하고, 미거한 여자입니다.

선생님은 여러 해 동안 職場에서 피어서 잘알지 못하는 어느 때나 비범한 것을 좋아 하시고華麗한 것을 좋아 하시며 平坦(평탄)한 것보다는 屈曲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저에게 잠시 사랑을 구하셨다 하더라도 저는 安心하고 그대로 선듯 따라나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結婚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앞으로 萬一結婚을 한다면 저에게는 저와 마찬가지로 平凡하고 素朴한 분이 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屈曲이 없이 平坦한대로 一生 동안 파란 없는 저어미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萬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가져 가시면 좋으리니 따라간다면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어서, 저는 또 저로서 반드시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전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제 좁은 소견에 그것은 확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선생님께서 잠시 기분에 끌리어서 저같은 것을 要求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남자들은 대개가 맹목적으로 애정 문제를 처리하려고 드십니다. 그러나 일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합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선생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계신 것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꼭해를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론 같은 職場에서 일하는 先輩님으로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것을 호감이라고 부르려면 불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異性으로서 호감을 가져본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기니와 선생님과 저 사이에는 도저히 때꾸러 하여도 때꾸러 수 없는 異質的 間隔(간격)이 가로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초라하게 살아가야 할 범용한 여자인 저에게는 너무도 높아서 손이 닿지 않는 분입니다.

부디 저를 폐쇄스러운 여자라고 생각치 말아 주십시오. 제가 여러 날 동안 망서리고 괴로워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저같은 보잘것 없는 여자로 해서 선생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친다면 그것은 결코 저의 본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드린 후에도 저는 선생님과 그전과 다름없이 사귄 것이며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이 사실을 발설치 않을 것이오니, 선생님께서도 어김없이 그처럼 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번 일을 백지로 돌리고 예전처럼 선배 후배의 순수한 우정으로 계속하여 사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으로 한번 더 부탁드릴 것은 지금의 선생님께 대한 이번 판단은 저로서는 결정적인 것이오니 부디 널리 용서하시고, 만일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의 이 진심을 담박한 심경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小說家·李璇求)

○非凡(비범) — 보통이 아님. 뛰어난. ○未舉(미거) —